

연예

12

2019년 7월 5·6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연예뉴스 HOT 5

옥택연, 누리꾼이 보낸 협박 메일 공개



옥택연

그들 2PM의 멤버 옥택연이 악성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에 대해 경고했다. 옥택연은 4일 자신의 SNS에 한 누리꾼이 보낸 메일과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는 옥택연과 함께 "나는 오빠의 전화 번호와 주소를 안다"는 등 협박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이달 3일까지 받은 메시지여서 더욱 충격을 준다. 이에 옥택연은 "아마도 같은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2PM 멤버들에게 이것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나는 이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며 팬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유승준 비자 관련 소송 11일 최종 판결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대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가수 유승준(43)이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최종 판결이 11일 나온다. 대법원 3부는 4일 이를 예고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의 의무에서 벗어났다. 이후 법무부는 17년 동안 그의 입국을 금지해왔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를 기각했다.

이시연, 日 경제보복때 여행 사진 못매



이시연

연기자 이시연이 SNS에 올린 일본 여행 사진으로 곤욕을 치렀다. 이시연은 4일 SNS에 일본 여행을 떠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해 사실상 경제보복 조치라는 비난을 받으며 국내 반일감정이 들끓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불편하다는 시각이 잇따랐다.

사기 피소 박상민 "명예훼손 고소 검토"

지인으로부터 사기 혐의의 피소된 것으로 알려진 가수 박상민이 이를 부인하며 반박했다. 박상민의 법률대리인 유병욱 변호사는 4일 'A씨가 10년 전 자신의 땅을 담보로 박상민에게 2억5000만 원을 빌려줬지만 그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A씨가 박상민을 형사고소하지는 않았다"면서 "대출원리금도 모두 갚았다"고 밝혔다. 유병욱 변호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박상민의 명예가 훼손됐으니 법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해 형사고소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2회 레지스탕스영화제 막 올라

제2회 레지스탕스영화제가 4일 막을 올렸다. '분노하며 돌아보라, 그리고 저항하라!'를 주제로 7일까지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서울극장에서 펼쳐진다. 올해 영화제는 7개 섹션 27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2014년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흑인 소년인 백인 경찰의 총에 목숨을 잃은 사건을 다룬 영화 '후즈 스트리츠?'를 개막작으로 선보인 영화제는 모든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서울극장 6층 티켓부스에서 매일 당일 상영작 티켓을 배부한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김정민 PD·주연 배우들이 말하는 채널A 새 금·토 드라마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의 매력



5일 첫 방송하는 채널A의 새 금토드라마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의 주연들. 왼쪽부터 최병모, 예지원, 조동혁, 이상엽, 박하선, 정상훈.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파격적 불륜? 부부에게 길을 묻는 성장 드라마"

CHANNEL "불륜 조장이나 미화? 절대 없습니다." 채널A 새 금토드라마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이 5일 밤 첫 방송하며 파격 행보에 시동을 건다. 불륜을 소재로 삼아 강렬하고 짙은 멜로의 이야기를 그린다. 연출자 김정민 PD와 주연 연기자들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 원작 드라마를 국내 감성에 맞춰 옮긴 과정, 현실성을 높인 연기자들의 열연도 지켜봐줄 것을 당부했다. 4일 서울시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김 PD와 박하선, 예지원 등 연기자들을 만나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의 매력을 미리 살펴봤다.

"성장드라마로 바달라" 드라마는 결혼한 여성들이 새로운 사랑에 빠지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는다. 원작은 2014년 일본 후지TV가 방송한 '매꽃~평일 오후 3시의 연인들~(매꽃)'이다. 금기된 사랑을 담기 때문에 자극적인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정민 PD는 이에 단호하게 고개를 젓는다. 김 PD는 "현실의 부부에게 '우리는 무

멜로가 전부 아니라는 김정민 PD "주인공들의 내적 갈등 표현 주력" 담백한 연기로 더 원작보다 현실감" 박하선 "인간의 외로운 이면 집중"

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드라마"라고 강조했다. 그 때문에 "배우들에게 첫 번째로 주문한 것도 담백한 연기"였다고 한다. 또한 "격정적인 멜로보다 주인공들의 내면적 갈등, 번뇌, 자기성찰 등을 표현하는 것에 더 주력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런 점에서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은 "성장드라마로 보는 게 옳은 해석"이라는 것이다.

주인공 손지는 역을 맡은 박하선도 김 PD의 해석에 적극 동의했다. 박하선은 "소재가 뻔하게 풀어내는 드라마였다면 아마 출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륜이란 소재에 대해 우리 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체크하며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은 100% 행복할 수 없다. 누구나 다 외롭고 슬픈 부분이 있다. 그런 인간의 숨겨진 이면에 집중하니 충분히 공감"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연기자들도 작품을 향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조동혁은 "요즘 보기 드문 통과 감성을 가진 드라마"라고 소개했다. 정상훈은 "보는 이를 서서히 설득시키는 대본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이상엽은 드라마의 주요 소품인 매꽃의 꽃말을 인용해 "서서히 깊숙이 스며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널A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의 여주인공 예지원(왼쪽)이 의상으로 드라마 속 파격적인 이야기를 예고하는 듯하다. 4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또 다른 주역 박하선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일본원작과 다른 점? 현실성과 공감" 원작 '매꽃'은 현지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탄탄한 팬덤을 쌓은 작품이다. 이런 상황에서 리메이크를 맡은 김정민 PD는 "부담감이 컸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매꽃"과는 또 다른 리메이크작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생겼다고 한다. 김 PD는 "원작보다 현실성과 공감을 높였다"며 "그를 위해 필요한 담백하고 현실적인 연기를 배우들이 충분히 잘 해냈다. 이들의 열연이 한국적인 정서를 높인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연기자들은 10분가량의 짧은 하이라이트에서조차 화려한 '연기 경쟁'을 펼쳤다. 예지원과 조동혁은 수위 높은 멜로신도 망설임 없이 소화했다. 예지원은 "물론 처음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무섭기도 했다"면서도 "원작과 달리 주인공들의 행동을 친절하지만 지루하지 않게 풀어주는 리메이크작을 보며 자신감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박하선vs예지원, '극과 극' 여주인공 드라마는 지극히 평범한 주부 손지는 역의 박하선,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최수아

예지원-조동혁 수위높은 멜로 소화 극과 극 여주인공들 색깔 다른 사랑 그들간의 '워맨스'도 또다른 볼거리 예지원, 시청률 3%·포상휴가 자신

를 연기하는 예지원을 중심으로 흘러간다. 두 여주인공은 각자의 사랑 이야기를 꾸려가는 동시에 그들만의 '워맨스'도 표현한다.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박하선과 예지원은 "우리가 그들의 성장이 궁금할 따름"이라며 캐릭터에 대한 짙은 애정을 드러냈다. 박하선은 특히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을 3년 만의 인방극장 복귀작으로 선택했다. 2017년 딸을 출산한 후 한동안 육아에 전념했던 그는 "손지은은 실제로 3년차 주부인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캐릭터였다"고 말했다. 남편이자 연기자인 류수영도 박하선보다 먼저 원작을 '정주행'한 후 "대박날 것 같다"며 출연을 적극 권했다고 한다.

예지원은 "광장히 늦은 성장통을 겪는 최수아에 호기심이 났다"며 궁금증을 풀어올렸다. 그는 "감정의 폭발 속에서 오는 인간의 솔직함을 다룬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두 여주인공은 드라마의 성공을 확신했다. 박하선은 "방송사에서 시청률 3%가 넘으면 포상휴가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웃었다. 예지원은 "채널A의 이름처럼 'A'학점'을 받지 않을까요?"라며 재치 넘치는 말로 자신감을 표현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